

알고 보니 비타민 같은 일

김승아
수시교육팀



‘교육(敎育) : [명사]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내가 강사로서 첫 교육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육’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1초도 안되어 검색된 ‘교육’의 뜻이 생각보다 꽤나 심오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이 말랐다. 입술도 마르는 것 같았다.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누구든 타인 앞에 서서 교육을 한다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일 테다. 우리는 대부분 교육을 받는 학생, 또는 수강생으로서의 경험이 강사로서의 경험보다 많지 않던가?

일정으로 잡힌 초등학교 교육을 앞두고 PPT 점검만 수십 번, 시연만 두세 번... 까짓 초등학교 교육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는 이도 있겠지만, 내겐 엄연히 언론중재위원회 강사로서의 첫 교육이었기에 의미가 남달랐다. 그렇게 지난 늦여름, 나는 웬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고양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컵스카우트 대원들을 상대로 첫 교육을 했다. 예전에 또래 학생들을 잠깐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일까?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의 떨림이라든지 입술이 바짝 마르는 등의 증상은 다행히 없었다. 교육을 마친 내게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어떻게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질문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 중인 필자

두 번째 교육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권활동가, 정신장애자가족 등이 연대하여 조직한 정신장애연대(KAMI)라는 시민단체의 교육이었다. 이 날은 시민단체의 적극성을 예상했던 대로 내가 PPT의 맨 마지막 장을 넘기자마자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질문의 요지는 ‘정신장애연대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그들을 대리해서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가?’로,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NO’였지만 연대측은 이에 대한 위원회의 구제방법에 대한 제시를 요청했다. 30분이 넘도록 질문과 토론이 계속되었다. 나는 이 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솔직한 시민단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돈 주고도 못사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후 몇 차례의 교육을 거치고 11월 초, 천안의 한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 정신장애연대 강의를 들은 대학생이 다시 교육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교육 후, 또 다른 교육신청이라는 피드백이 올 때가 강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이 날은 오랜만에 싱그러운 대학 캠퍼스에 갔던 터라 정말 즐겁게, 그리고 자유로이 대학생들 앞에서 교육을 했던 것 같다. 늦은 시간의 지방 일정이자 집에 오니 저녁 11시 무렵이었지만...

반추해보면 교육 업무는 요즘 내 회사생활의 비타민일 정도로, 내 일상을 활기차고 즐겁게 해주는 한 가지가 되었다. 난 교육장에 가서 강의를 할 뿐이지만, 강의를 듣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내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듯하다. 비록 한 시간 반, 두 시간의 교육을 위해 열 배의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아직 교육 경험이 많진 않지만, 대상자가 상이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보니 눈높이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되었다. 통상 눈높이 교육이란 아이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아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교육을 요청하는 이유와 목적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맞춤형 눈높이 교육— 즉 교육 대상에 따른 사례, PPT의 순서, 하물며 교육자의 태도, 목소리의 억양, 아이 컨택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것들은 맞춤형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 나가보니 더욱더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앞으로 몇 건의 교육 일정이 더 잡혀 있다. 비록 난 PPT를 고치고 또 고치고, 멘트를 수정하고 해야 할 테지만 소풍을 목전에 둔 아이처럼 아직은 설렌다.

